

현대차, 합의안 연내 수용해야 국비확보 등 사업 '탄력'

급물살 탄 '광주형 일자리' 향후 일정과 과제

파국으로 치닫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에 따라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노동계의 참여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도 정상화할 전망이다. 광주가 '미래 자동차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로 만들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담긴 투자협약서(안)를 현대차가 얼마나 수용하고, 이 과정에 노동계의 추가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광주에 현대차 합작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치지 말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동차연구단지 등을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대를 대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장이 나란히 광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투자유치추진단과 현대차의 재협상이 가장 큰 관건이다.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통해 노동계 등과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줄인 뒤 합의안을 만들어 실질적인 투자 협약을 이끌어

큰 틀 대체적 동의 세부내용 이전 자동차연구단지 함께 설립해야 1000억여원 투자 유치도 난제 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행복 주택 등 광주형 일자리 복지 예산 3000억원의 일부라도 내년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투자협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투자협약도 되지 않은 사업에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 등은 큰 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동의하면서도 5년 이내 임금 동결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은 재협상 등을 통해 투자협약서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기다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일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갖는다.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통해 최종 투자협약에 이르면 광주시는 노사민정 회의를 열고, 현대차 합작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법안 설립 작업을 할 계획이다.

법안 설립 이후에도 공장 설립까지는 현



1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용섭 광주시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 등이 손을 맞잡고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전체 투자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1대 주주로 590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현대차는 53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남은 1120억원을 투입할 투자자도 모아야 한다. 이후 차입금 4200억원을 마련해 총 7000억원을 들여 빛그린산

단 내 62만8000㎡ 부지에 1000cc미만 경형 SUV 10만대를 양산하는 합작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광주시·노동계와 현대차 간의 최종 협상도 문제지만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및 차입해야 하는 것도 광주형 일자리가 풀

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본 기타큐슈는 거의 20여년동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학과 연구소를 만들고, 대규모 자동차 전문 인력양성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이 구체화하면 이에

맞춰 빛그린산단 일대에 자동차 연구소 등을 설립해 광주에서 미래 자동차의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뤄지고,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 강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조 요청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경제·평화·정의의 메시지가 담겼다.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숨찬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함께 잘 살자'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이런 기조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둔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인식에 대응하여 이들 3대 기조의 앙상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의 화두는 한반도 평화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벌이는 치열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기적같이 찾아

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라는 언급은 이를 방증한다.

또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미래비전 제시" vs 한국 "민심 동떨어진 독선"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나고 "(문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

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며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 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제12회 14세 & 세계 & 경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외모를 평가하게 된다. 내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계선이다.

김벼리 / 장래의 꿈 : 심리상담사

내가 잘 때와 자지 않을 때는 세계가 다르다. 단순히 나누자면 낮과 밤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깨어있을 땐 이 세상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잠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만의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허황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 지구 이 우주가 어찌면 어떠한 존재의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밤에 잠을 자 꿈을 꾸면 나오는 내 세계는 어찌면 무언가에게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부럽다.

이지원 / 장래의 꿈 : 타인을 우선시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